

이나 臺座의 背面처럼 리는 아주 조잡하게 한 것으로 보아 벽에 붙였던 것이라 하겠다.

(身高一二七cm 頭高四〇cm 肩幅五一cm 무릎너비六八cm, 무릎높이三五cm 臺高二八cm 幅八九×八八cm)

이 石窟에서 向左로 약 一六m 떨어진 岩壁에 조그만한 石窟이 發現되었다. 自然 洞窟을 파내어 長方形(六m×三m)의 石室을 만들었지만 뒷벽의 낮은 洞窟은 그냥 두고 있다. 前面도 法堂窟에서 볼 수 없는 뚜렷한 人工의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역시 담이며 구들장들이 남아 있어 온돌방을 만들어 僧侶가 거주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말하자면 僧堂窟인 셈이다.

羅漢窟은 이들 두 石窟에 비하면 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自然洞窟에 불과하다. 長八m 幅三m의 생긴 그대로의窟이어서 쓸모는 그렇게 없을 듯 보인다. 傳해오는 말이나 造像들이 없다면 無心히 지나쳐 버릴 그런 형태다.

羅漢이라 생각되는 坐像片들이 數片 흩어져 있으나 형태나 마다 소집 작게 하는 것은 一片뿐이며 이것도 어깨 이상은 없어지고 아랫부분도 알아 볼 수 없는 조잡스런 坐像片이다. 그러나 菩薩立像 一軀는 머리만 없어진 채로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수법도 우수한 편이다. 반듯하면서도 당당한 체구나 튀어나온 가슴, 잘숙한 허리, 세가닥의 「상각기」자락들은 新羅菩薩 그것이라 생각될 만큼 秀作이지만 縱線으로 내려지고 있는 天衣나 流麗하지 못한 거친 刻法 따위는 역시 時代의 下降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全高 六九cm 肩幅 三三cm)

法堂窟, 僧堂窟, 羅漢窟의 三石窟이 하나의 石窟寺院을 이루고 있는데 造像으로 보아 高麗中期에 경. 되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高麗石窟寺院을 研究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하고 또 數窟이 조합되어 일개 自然石窟寺院을 이루고 있는 이 같은 石窟

이 高麗中期에도 여전히 景營되고 있다는 사실은 築造石窟의 새로운 發現이나 磨崖石窟의 盛行하던 景營과 함께 高麗時代에도 石窟寺院造營분 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① 自樂洞 人 金允淸氏의 안내를 받아 三窟을 겨우 찾았다.
- ② 金元龍 「普門庵石造羅漢像」美術資料七號

晦齋遺蹟 香壇에 對하여

鄭 明 鎬

지난 數個月間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石燈資料를 收集 및 現況實態調査를 위하여 踏査途中 九月中旬頃에 慶尙北道 月城郡 玉山洞에 所在하고 있는 玉山書院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 玉山書院 求仁堂 前庭에는 石燈資料가 있으므로 이를 調査하기 위하여 찾아 본 것이다. 現在 이 石燈은 火舍石以上部材를 除外한 他部材만이 남아 있다. 아마도 이 部材는 이 곳에서 約二km 떨어진 淨惠寺址에서 移置한 것으로 推定되어 진다. 이 石燈部材調査를 마치고 書院과 晦齋先生님의 遺蹟을 살펴보게 되었다.

玉山書院은 李朝 宣祖五年에 晦齋 李彥迪先生을 奉祀하기 위하여 그의 孫子 求庵公이 當時 慶州府尹과 協議하여 華蓋山下에 書院을 創建하게 되었다 한다.

晦齋先生님은 成宗 二十二年 弘治 四年 辛亥 十一月 二十五日(西紀一四九一年)에 驪州李氏인 父蕃과 母 良洞孫氏 사이에서 誕生한 李朝의 名儒이시다.

이는 九歲때 父를 여이고 慶州良洞에 사시는 外家에 들어가 成長하면서 學門에 힘써 中宗九年(一五一四)에 乙科 級第하여 天官郎을 비롯하여 仁同縣監 掌令 密陽府司 等を 歷任하고 또 宗簿寺 僉正 直提學 全州府尹에서 嘉善에 올라 禮曹參判 右贊成 議政府 右贊成까지 이르렀으나 乙巳士禍를 당하여 江界에 귀양가서 死亡하신 분이시다.

으로 찾아보아야 할 줄로 믿는바다.

이 建物에 있어서도 柱의 形態는 柱心包系로서 纒縵차가 보이며 마루臺工은 역시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에서 찾아 볼 수 있는 類型이 있음을 보아 注目되는 建物이다.

建立年代에 對하여는 우선 獨樂堂의 建立年代가 밝혀지면 自然히香壇年代도 어느정도 推定이 될 줄로 믿어지는 바다.

獨樂堂은 晦齋先生님께서 西紀一五三二년에 建立하시었다. 하면 이 建物은 어떠한 變動을 加하지 않은한 마땅히 獨樂堂의 前後作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香壇은 獨樂堂보다는 훨씬 前에 建立되었을 것이며 또한 獨樂堂의 母體型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晦齋遺蹟에 對하여서는 많은 研究가 必要하며 後日 機會를 얻어 詳論하고저 한다.

資料

安靜寺 所藏 萬曆八年銘 銅鐘

金 和 英

오래 전부터 統營郡內 安靜寺에 壬辰倭亂이전에 鑄造된 銅鐘이 遺存한다고 傳聞하던 중 지난 여름 이 곳을 踏查하여 調査하였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安靜寺는 慶南 統營郡 光道面 安靜里에 位置하고 있는데 境內에는 萬歲樓 大雄殿 七星閣等 數棟의 建物이 있으나 모두 오래 되지 않은 建物이었고 入口에 自然石으로 結構된 小規模의 아취가 흥미로웠다.

이 鐘은 萬歲樓에 걸려 있는 總高一一七cm에 達하는 大鐘으로서 鐘身各部에 靑綠銹가 보이나 保存은 良好하다. 이 鐘의 樣式은 韓國鐘으로서의 通式을 따르고 있으니 頂上에는 半破된 音管과 사실적이며 웅건

한 手法를 보이고 있

는 龍鈕가 있고 鐘肩에는 瓣端에 귀꽃이 있는 李朝時代의 紋樣化된 單葉伏瓣의 上帶가 둘러진 上部에는 三山形에 加잡게 變形된 如意頭紋을 周廻하였다.

乳廓은 上帶 바로 아래로 四處에 配置하였는데 乳廓 周圍는 上·下에 珠紋帶를 두른 忍冬紋을 陽刻하였고 乳廓內에는 珠紋帶를 두른 八葉單瓣 蓮華紋의 九乳가 있다. 鐘身에는 撞座와 銘文이 陽刻되었는데 撞座는 四處에 配置되었으며 三重의 同心圓의 中心에는 卍字가 있고 그 밖의 第二圓에는 小圓內에 陽鑄된 梵字 六字가 周廻되고 다시 連珠가 그 밖에 돌렸으며 밑에는 雲紋이 받치고 있는 形狀이다. 銘文은 乳廓間에 上·下로 三處 下帶 위에 一處 모두 四處에 陽刻되었고 下帶도 역시 上·下가 連珠紋으로 둘러 蓮華·忍冬紋이 裝飾되었는데 現場에서 判讀된 銘文은 다음과 같다.

萬曆八年庚辰八月日
全羅道潭陽府秋月山
龍泉寺上大鐘□□百餘斤 安鈞先 朴春永 高千連 崔信 姜正太 洪非宥非 金大云 金□連 宋若番 溫應伊 崔千 吳金浩 金次

錠一
持音明悟 首僧天寶 持寺太田 直批明立 幹事 卍軒 畫員成堂 眞玉文幹 化主天引 戒生 性元 莫夫之 羅州非聖傳 宋順伊 全州白家 金千永 洪允伊 餘朴只 馬知伊

道見 石峰 棠道彥 信全 道信 儀女 學文 知还 一訓 南雇 性林 卍畫善時 道奉 白仁 道不 信凡 承明 應□ 夫暉 明伊 能初 惠信 一朱 萬德 放守 守玄 崇戶 引玉 氏田 明云

